

경수진 “아직 연기 목말라...윤여정처럼 되고 싶어요”

tvN 드라마 ‘마우스’ 종영 화상 인터뷰

‘셜록 홍주’ 시사교양 PD ‘최홍주’ 역할

“감정선이 정말 쉽지 않았어요. ‘홍주’는 힘든 일을 많이 겪고 트라우마가 있었기에, 내면이 많이 힘들었죠. 마지막에 ‘홍주’의 이야기를 풀고 끝내니 시원섭섭해요.”

최근 종영한 tvN 드라마 ‘마우스’에서 ‘셜록 홍주’로 불리는 시사 교양 PD ‘최홍주’ 역할을 맡은 배우 경수진은 드라마를 마친 소감으로 “일단 후련하다”며 환한 웃음을 보였다.

그는 지난 23일 화상으로 진행된 인터뷰에서 “처음 대본을 받았을 때는 4부까지 ‘홍주’가 굉장히 밝은 캐릭터인 줄 알았다”며 “하지만 앞으로 감정이 굉장히 깊어지고 트라우마가 있는 인물이라고 얘기를 듣고 (캐릭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경수진이 분한 ‘최홍주’는 살인마 프레데터의 흔적을 좇으며 취재를 위해 물불 안 가리는 시사 교양 PD다.

하지만 사실 최홍주는 연쇄 살인마 헤드헌터 ‘한서준’(안재욱)으로부터 여렸을 때 납치당한 후 범죄 유인책으로 이용당한 아픈 기억이 있다. 이후 이름을 바꾸고 부모님에게 돌아가지 못한다. 그는 ‘셜록 홍주’ 방송을 통해 프레데터를 추적하고 그 모든 일의 배후를 폭로하며 진실을 밝혀낸다.

경수진은 “‘홍주’의 감정선은 쉽지 않았다. 부모님에 대한 감정이나 ‘한서준’에 대한 복수심 등 감정이 많았다”며 “많이 배웠고, 대본에 나오지 않는 감정을 표현하면서 조금은 성장하지 않았나 싶다”고 돌아봤다.

“극단적 선택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아픈 트라우마를 갖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살인 장면을 직접 봤고, 일단 ‘한서준’에 대한 두려움을 먼저 생각했죠. ‘홍주’가 왜 집에 못 돌아갈까. 드라마에 나오진 않았지만, ‘한서준’이 부모님을 두고 협박하지 않았을까 작가가 얘기해주셨죠. 어린 나이에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이 있었을 거고, 이를 바탕으로 연기했죠.”

극 중 살인마 프레데터가 ‘정바름’(이승기)이라는 사실을 중간에 알고 있었다고 했다. 경수진은 “‘정바름’이 사이코패스인 걸 알면서도 계속 묵인해야 했기에 힘들었다”며 “‘최홍주’의 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감정을 담담하게 가져갈 수밖에 없어서 답답한 면도 있었다”고 말했다.

‘최홍주’는 극 중 사이코패스로 오해를 받았던 ‘성요한’의 아이를 낳아 기르기도 한다. 경수진은 ‘성요한’을 연기한 권화운과의 연인 호흡에 대해 “(연인이면) 서로 감정이 오가야 하는데 감정 교류가 안 돼서 힘들었다”고 웃었다.

“권화운 배우의 캐릭터가 초반에는 사이코패스 같은 느낌의 차가운 캐릭터였잖아요. 차가움을 많이 표현했는데, 권화운 배우가 연기를 잘했는지 약간 통나무와 연기하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많이 힘들었죠.(웃음)”

또 권화운이 최근 인터뷰에서 경수진과 다음에는 로맨틱코미디를 해보고 싶다고 밝힌 것에 화답했다. 경수진은 “기사를 봤다. 저야 감사하다. 연상연하 커플로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호탕하게 웃었다.

시사 교양 PD 역할을 연구하며 배우 김상중이 진행하는 ‘그것이 알고 싶다’도 참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아무래도 PD이기 때문에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팩트를 전달하는 것에 대해 생각을 많이 했다”며 “PD이지만 MC 같은 역할이기에 부담도 많이 있었다”고 말했다.

“일반 방송이라면 프롭터가 있지만, 저희는 연기라서 다 외워서 해야 해서 대사에 대한 압박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리허설도 많이 했죠. 김상중 선배님이 하시는 ‘그것이 알고 싶다’도 보면서 여러 가지를 많이 참고했어요.”

이번 작품에서 경수진은 단발로 변신하기도 했다. 헤어스타일 변화에는 경수진의 의지가 강했다고 밝혔다.

“‘홍주’로서의 변화는 물론 경수진에 대한 변화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간단 있게 변화하면 헤어스타일에 변화를 줘야겠다고 생각했죠. 매번 작품에서 긴 머리카락의 모습만 보여드려서 변신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한가지 스타일만 고집하다 보면 스스로 감지하지 않을까 싶고, 늘 변신에 대한 갈증은 있죠.”

“마우스” 시즌2를 기대하는 시청자들도 있다. 경수진은 “저도 궁금하다. 시즌2에 대해 얘기한 건 없는데, 나중에 그렇게 된다면 좋을 것 같다”고 답했다.

예능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해 화제가 되기도 했던 경수진은 “사실 예능 올림증이 있다”고 크게 웃었다. 그는 “제가 말을 잘하거나 몸개그를 잘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자연스러운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관찰 예능에서 재미있게 보이지 않았나 싶다”며 “기존의 드라마 캐릭터와 다른 경수진의 삶을 봐서 재미있게 봐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에 장르물을 선보인 만큼 다음에 도전하고 싶은 작품으로는 로맨스를 꼽았다. 그는 “달달한 사랑 이야기나 현실적인 사랑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고 미소 지었다.

“저는 밝고 긍정적인 편인데, 사연이 많아 보이는 얼굴이 있나 봐요. 감독님들이 주로 (장르물로) 캐스팅해주는 것 같아요.(웃음) 물론 다양한 캐릭터를 할 수 있어서 장점이고, 스펙트럼을 넓게 봐주셔서 감사하죠.”

지난 2011년 데뷔해 올해 10년차가 된 경수진은 “아직 연기할 날이 많다”며 실감 나지 않는다고 수줍게 웃었다.

그는 “배우는 자기 삶이 연기에 투영된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늘 삶을 진실되게 살려고 노력한다. 그래야 제 연기도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다가가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연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직 (연기에) 목마르죠. 여전히 많은 캐릭터와 장르를 하고 싶고,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앞으로도 배우 경수진의 과정을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윤여정 선배님께서 오스카에서 상을 받으셨잖아요. 너무 부듯하고 저도 그렇게 되고 싶다고 생각하죠. 앞으로 배우로



서 남은 날들을 더 기대하고 있어요. 진정성 있는, 믿음을 주는 배우가 되고 싶어요.”



베일 벗은 ‘이터널스’...‘NEW 히어로’ 등장

티저 예고편 첫 공개, 11월 개봉

마동석의 첫 번째 마블 영화로 관심을 끈 ‘이터널스’가 마침내 베일을 벗고 티저 예고편을 최초 공개했다.

25일 월트디즈니 코리아에 따르면 공개된 예고편은 광활한 자연이 펼쳐진 지구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새로운 슈퍼 히어로 ‘이터널스’ 군단을 만날 수 있어 시선을 사로잡는다. 앤젤리나 졸리를 비롯해 켈라 찬, 셀마 헤이엑 등의 배우들이 남다른 아우라를 뽐내내는 비주얼로 공중에 금빛의 특별한 문양을 만들

어내고, 땅에 물을 흘려보내는 등 초인적인 힘을 펼쳐 호기심을 자아낸다.

특히 마동석이 ‘길가메시’ 역으로 합류해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다.

‘노매드랜드’로 제93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및 감독상을 안은 클로이 자오 감독이 연출을 맡았다.

디즈니 측은 “개성 넘치는 히어로들의 화려한 액션과 스펙터클한 볼거리는 물론, 더욱 깊어진 스토리의 새로운 마블의 세계를 선사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11월 개봉 예정이다.

소녀시대 윤아, 30일 온라인 생일 파티 ‘윙데이’

임윤아(소녀시대 윤아)가 온라인으로 생일 파티를 열고 팬들과 함께한다.

24일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임윤아는 오는 30일 자신의 생일을 맞이해 온라인 생일 파티 ‘윙데이-YOONA’s Birthday’를 생방송으로 진행한다.

이번 방송으로 임윤아는 글로벌 팬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한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 활동을 돌아보는 것은 물론 팬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Q&A와 앙케트 코너를 진행, 각종 비하인드를 전격 공개

할 예정이다.

매년 생일마다 깜짝 이벤트와 기부로 나눔을 실천한 임윤아는 “항상 응원해주는 팬들에게 감사함을 작게나마 보답하고 싶어 ‘윙데이-YOONA’s Birthday’를 기획하게 됐다. 많은 고민과 회의 끝에 팬분들이 좋아할 만한 내용들로 가득 채웠으니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윙데이-YOONA’s Birthday’는 30일 오후 3시 네이버 라이브(V LIVE) SMTOWN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만나볼 수 있다.

이승기♥이다인, 열애 인정...“6개월전부터 만남”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배우 이다인이 6개월째 열애 중이다.

이다인의 소속사 9아도엔터테인먼트는 24일 공식입장을 통해 “이다인 배우 본인에게 확인된 본 결과 선후배 관계로 만나 5-6개월 전부터 좋은 감정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두 사람이 좋은 만남을 이어갈 수 있

도록 따뜻한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승기와 이다인이 지난해 말부터 교제를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1987년생과 1992년생으로 5살 차이인 두 사람은 배우라는 공통분모와 취미인 골프 등으로 가까워진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해 함께 강원도를 찾은 모습도 보도

됐다. 두 사람은 강원도 강릉과 이승기의 할머니가 살고 있는 속초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승기는 지난 2004년 1집 ‘나방의 꿈’으로 가요계에 데뷔해 ‘내 여자라니까’, ‘결혼해 줘라’, ‘되돌리다’ 등의 히트곡을 냈다. 같은 해 MBC 시트콤 ‘논스톱5’를 통해 배우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드라마 ‘소문난 칠공주’, ‘잔란한 유산’, ‘내 여자친구는 구미호’, ‘더킹 투하츠’, ‘구가의 서’ 등과 영화 ‘오늘의 연애’, ‘궁합’ 등 다수 작품에 출연했다. 최근에는 tvN 드라마 ‘마우스’를 마쳤고, 현재 SBS 예능 ‘집사부일체’ 등에 출연 중이다.

이승기는 이날 데뷔 때부터 17년간 몸담아 온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를 떠난다는 소식도 알려졌다.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이승기와 오는 5월31일부로 계약을 종료하게 됐다”며 “최근 이승기가 신생 1인 기획사를 설립, 독립 후 활동을 이어나가기로 해 앞으로는 협력사로서 함께 응원하고 돕는 관계로 발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다인은 2014년 드라마 ‘스무살’로 데뷔해 드라마 ‘여자를 울려’, ‘화랑’, ‘황금빛 내 인생’, ‘이리와 안아줘’, ‘닥터프리즈너’ 등에 출연했다. 지난해 종영한 SBS 드라마 ‘엘리스’에서는 ‘박진경’(주연의 친구인 사회부 기자 ‘김도연’ 역으로 출연했다. 이다인은 배우 견미리의 딸이자 이수비의 동생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이상순, ‘슈퍼밴드2’ 프로듀서 합류

JTBC “첫 녹화 마쳐”

뮤지션 이상순이 JTBC ‘슈퍼밴드2’에 프로듀서로 합류한다.

JTBC 관계자는 25일 “이상순이 ‘슈퍼밴드2’에 프로듀서로 합류했다”고 밝혔다. 이상순은 첫 녹화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효리의 남편으로 잘 알려져 있는 이상순은 지난 1999년 밴드 ‘롤리코스터’로 데뷔했다. 이후 ‘습관’, ‘힘을 내요, 미스터 김’, ‘라스트 신

(Last Scene)’ 등 히트곡으로 큰 사랑을 받았다. 국내 톱 기타리스트로 손꼽히며 토이, 김동률, 윤상 등 다수 뮤지션 앨범의 작곡가, 세션 및 프로듀서로도 알려져 있다.

또 이효리와 함께 JTBC ‘효리네 민박’, MBC ‘놀면 뭐하니?’ 등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대중에게 친근해졌다. 지난해 ‘놀면 뭐하니?’에서 이효리와 유재석, 비로 구성된 혼성 프로젝트 그룹 ‘썩쓰리’의 ‘다시 여기 바닷가’를 작곡하기도 했다.

